

제 목 :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는 새일센터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내 나이 33살. 주변 사람들은 아직 젊다고 될 걱정이냐는 식으로 말하지만 내 안의 나는 너무나도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26살 요즘으로 치면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 임신, 육아를 위하여 요즘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7년의 시간을 지내며 아내와 엄마로서 살림과 육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누구도 경제활동을 하라 강요한적 없지만 제 스스로가 또 다른 시작을 하고픈 간절함을 느낄 때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되어있는 새일센터 창업 직업교육훈련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려동물 수제간식 전문점 창업과정』은 반려견이 있는 저한테 유독 관심 가는 과정 이었습니다. 서류 접수 전까지도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던 내가 7살, 5살 아직 어린 아이들을 두고 당장 창업은 아니더라도 교육이라도 과연 받으려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교육 신청 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면접을 보면서 긴장감에 많이 떨었지만 자기소개를 하고 교육 참여 각오를 말하는 순간 뭔지 모르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교육 첫날 걱정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롯이 나를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갖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오후 창업반 수업 시작 전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가게 매물들을 확인하고 시청 담당 주무관님도 찾아서 만나보고, 오후 창업반 수업 끝나면 다시 육아 전선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케어하고 난 후 밤에도 창업에 대한 열정으로 새벽까지 오후 수업 내용과 유튜브 관련 서적들을 보며 나만의 레시피를 연습하고 다음날 교육생 선생님들께 나눠드리고 피드백을 들으며 창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교육이 체 끝나기도 전이라 성급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도 하였지만 새일센터에서 함께 해주시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전 일과 오후 수업, 저녁 육아에도 지칠 새 없이 마냥 즐거운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막연히 답답했던 나의 마음속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고민만 하고 있을 때면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용기를 주신 새일센터 담당 선생님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육기간 내내 자존감이 올라감과 동시에 단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닌 정말 창업에도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장견학과 창업관련 교육에 단미사료제조업에 대한 세심한 허가 방법이나 절차, 구비 시설에 대한 교육 덕분에 헤매지 않고 쉽게 창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환경개선 지원금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도움 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창업자에게 부담되는 인테리어 비용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료 후에도 창업정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초기자금 대출정보 등을 공유해주시며 혼자였다면 막막했을 창업 준비에 많은 정보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수료 후 지난 8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장 내 판매할 사료 성분검사 결과가 마무리 되는 11월 13일에 드디어 오픈을 하였습니다.

매장 일이 익숙해질 때쯤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해야 되서 막막했었을 때도, 새일센터에서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강의를 주기적으로 정보제공을 해주셔서 스마트스토어 오픈 또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오픈하여 10개월 차, 정말 얼마 되진 않았지만 2022년도에 새일센터 『반려동물수제간식 창업반』 현장 견학 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생들이 매장으로 현장견학을 오셨을 때, 작지만 열정 가득한 저희 몽셀포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저를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금 타 기관 두 곳에서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주제로 강의 요청이 들어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반려동물 관련 창업 아이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이라, 업종의 특성상 꾸준하게 신뢰를 쌓아가야 하기 때문에 몽셀포포의 슬로건인 ‘건강하고 달콤한 시간, 반려동물 가족에게 선물해주세요!’의 취지에 맞게 바르고 안전한 간식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신 메뉴를 개발하여 테스트 작업과 성분 등록을 하는 등, 늘 새로운 반려동물 수제간식 매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따른 매출도 매달매달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는 저에게 단순히 교육으로만 끝나는 곳이 아닌,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경력단절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보다는 여럿이 함께 한다면, 더욱 더 잘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일센터와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꼭 도전하세요!